

'광주의 강남' 봉선2동 위장전입 횡행... 구청·교육청 수수방관

[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①

광주 남구 봉선2동은 고가의 대형 평수 아파트와 유명 학원이 밀집해 있어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이 이면에는 자녀의 진학을 위해 불법마저 불사하는 어긋난 교육열도 있다.

지나친 교육열과 부동산 시장의 부추김, 당국의 묵인까지 얹히고 얹혀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고위 관료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로 무더진 탓인지, 행정·교육 당국은 사태조차 모른다.

그사이 학생 수가 팍 찬 '1군' 학교는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벌주의에 대한 위화감은 깊어졌으며 교육의 공정성마저 무너지고 있다.

4회에 걸쳐 '광주 교육 1번지'의 위장전입 실태를 들여내고 진단과 해법을 제안한다. (편집자주)



광주 남구 봉선동 초등학교 일대 학원가.

'1군 학군' 봉선 2동 소재 초등학교 2곳 학생 수 포화 매년 줄줄이 전학... 입학 직전 석달 새 취학아동 급증 과밀 학급 배경 중 하나는 공공연한 불법 '위장 전입' 학습권 침해, 공정성 훼손... 허술한 법망에 적발 안돼

교 모두 성적이 좋은 상급 학교가 있는 학군 안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다른 학교 대비 전학생 수가 많다.

입학생 역시 3월 개학 직전 2~3개월 사이 신규 전입 학생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올해 A초교 입학 예정 취학 아동은 당초 104명으로 추산됐으나 올해 3월 115명이 입학했다. 석달 사이 11명이 A초교 예정 주소지로 추가 전입, 증가율은 10.57%이다.

지난해에도 입학 예정 취학 아동보다 실제 입학생 수가 10명 많았고, 2023학년도에도 최초 집계보다 12명이 더 입학했다.

같은 기간 B초교 역시 학교에 통보된 최초 취학아동 수보다 실제 입학생은 최대 13명 더 늘었다.

단순히 '1급 학군지'에 대한 과도한 선호 현상으로 정상적인 주소지 이전이 상

당수일 수 있다.

그러나 봉선2동 학원가에서는 '위장전입'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해 초 A초등학교는 입학생 예비소집 당일에 '위장전입 적발 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뒤틀린 교육열이 낳는 폐해는 적지 않다.

관내 정주인구에 맞춰 시설을 갖춘 일선 학교들은 저출생 시대에 보기 드문 '콩나물 시루' 교실로 흥역을 치른다.

A초교와 B초교 모두 꾸준히 학급을 증설했지만, 매년 학생 수가 늘어 교실마저 부족할 실정이다. 기존 부지·시설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많아 수업의 질과 집중도가 떨어지며 교육권 침해로 이어진다.

불법도 서슴지 않는 학벌주의에 따른 위화감이 팽배하다. 학생들마저 불법 전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교육 공정성마저 무너질 수 있다. 학군지 주변 아파트 거

래가가 치솟아 주택시장 왜곡·교란 등도 발생한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자체는 전입신고를 받으면 통장이 사실 확인을 거치는 데 최근 위장전입 적발 실적은 없다.

통장이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위장전입 주소지인 원룸·빌라 등지에 가건·가구를 갖춰 놓고 실거주 시늉을 하면 그만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실거주 조사 때만 속이면 적발되지 않는다는데 봉선동 학군 전입 희망 학부모들에게 불법마저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 역시 주민등록기록 상 가구주와 학생의 동거 여부만 파악하는 서류 확인에 그쳐 교묘한 위장전입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한 현직교사는 "봉선2동 내 몇몇 학교의 위장전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적발이 없어 학생 과밀은 매년 되풀이되며 학교는 포화 상태다. 결국 학습권을 침해 받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당국이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교육부, 보성고 자공고 지정... 문화·농수산 교육 특화 5년 간 매년 2억원 재정 지원·교육 자율권 지역 산업기반 연계한 미래 전문인재 육성

전남 보성고등학교가 교육부가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돼 문화·농수산 분야 특성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에 보성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은 농산어촌, 원도심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로,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에서 39개 고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이 중 25개 학교가 심사를 통과했다.

자공고 2.0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학교는 향후 5년 간 매년 2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자율권,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제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에는 자공고 2.0 운영학교가 총 17개로 늘어나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지역 다음으로

많은 학교를 운영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4월 상반기 권역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자공고 2.0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보성고는 내년 3월부터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한 문화관광·농수산 융합 분야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특화 교육을 운영한다. 보성고는 보성군청, 동신대 호텔관광경영학과, 전남대 AI융합대학 및 수산해양대학, 순천대 농생명과학과, 목포대 국제차문화학과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김문주 보성고 교장은 "이번 자공고 지정은 계기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보성의 문화·산업 자원을 기반으로 꿈을 설계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성아 전남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보성고의 자공고 지정은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고교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보존·활용 체계 강화한다

600개소 현황조사 완료... 미조사 유적 추가 연구용역 추진

전라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

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다크투어리즘·역사교육 현장·전시 및 기념관 조성 등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석 전남도 문화유산정책관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